

# “사명감” 조진웅 · 이하니 금융사건 고발극 첫 호흡

영화 ‘블랙머니’ 내달 13일 개봉



배우 조진웅(왼쪽부터), 정지영 감독, 이하니가 10일 오전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블랙머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 이하니가 처음 만나 무거운 금융사건을 파헤친다. ‘막프로’ 검사와 엘리트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감을 모은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영화 ‘블랙머니’ (감독 정지영) 제작보고회가 열려 조진웅, 이하니, 정지영 감독이 참석했다.

‘블랙머니’는 수사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막 가는 ‘막프로’ 양민혁 검사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의 자살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다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는 희대의 사건을 다루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매번 실화 소재를 영화로 다루며 고발적인 영화를 선보여온 정지영 감독은 이번에도 고발 영화를 그렸다. 이날 정지영 감독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

는 무수히 많은 소재가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소재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르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화되는데 그런 것을 좀 파헤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조진웅은 일명 서울지검 ‘막프로’로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로 이름을 날리는 양민혁 검사로 분했다. 이하니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김나리 역으로 분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슈퍼엘리트를 연기한다.

조진웅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수사에 있어서는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는 검사 역할이다. 수사를 파헤치는데 있어서 막힘 없고 거침 없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다. 법을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데 막 나가서 ‘막프로’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하니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못나본 적 없을 여자다. 김나리가 자신과 정말 다른 캐릭터인 ‘막프로’ 양민

혁 검사를 만나면서 검사지만 검사가 무섭지 않은 변호사인, 특이한 케이스의 변호사”라며 “사실 김나리 자체가 엄청난 인텔리다. 미국에서 유학한 설정도 있고 영어 대사가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를 할 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척 하지 않아도 말하는 모양새만 봐도 지적인 사람이구나 보이는 게 어렵더라”고 말했다.

조진웅과 이하니는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연기 호흡을 맞춘다. 이하니는 “언제 연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만나게 됐다. 잠시 대기할 때나 카메라에 같이 서서 연기할 때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 그 에너지와 힘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우구나 생각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고 극찬했다. 이에 조진웅도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라며 “팔색조, 구색조 그 이상을 칭해도 아깝지 않다. 처음 협연인데 굉장히 훌륭하고 놀라웠다”고 칭찬해 두 사람의 호흡을 기대케 했다.

정지영 감독은 “이 영화 내용은 검찰 개혁과 맞닿아는 화두가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영화 속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가 대중들의 가치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웅도 ‘블랙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만한 소재인데, 관심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양민혁을 통해 통쾌하고 쉽게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나리오 보고 심쿵했고 지금 해야 하고, 내가 해야겠다는 사명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블랙머니’는 오는 11월 13일 개봉한다.

## “항상 무거운 역할만 제안...첫 로코 제안 감사했다”

배우 이정현, 영화 ‘두번할까요’ 인터뷰



배우 이정현이 연기 갈증에 대해 이야기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두번할까요’ (감독 박종집) 주연 이정현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두번할까요’는 생애 최초 이혼식 후 N차원 와이프 선영(이정현 분)에게서 해방된 현우(권상우 분) 앞에 이번에는 옛 친구 상철(이종혁 분)까지 달고 다시 그녀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세 남녀의 싱글라이프를 다룬 코믹 로맨스 영화다.

이정현은 ‘두번할까요’를 통해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했다. 그는 극 중 현우와 이혼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싱글라이프를 즐기다 우연한 사건으로 상철의 구애를 받게 되는 선영 역으로 등장했다.

이날 이정현은 “시나리오가 항상 무거운 역할이 들어오고 어려운 것만 들어오는데 로맨틱 코미디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다”며 “여러 배역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었다. 역할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배우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다. 하나의 이미지만 계속 들어오곤 한다. 로맨틱 코미디 너무 하고픈데 왜 안 들어오지 했다”고 말했다.

이혼식 설정에 대해서는 “선영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혼하기 싫은데 자존심 상하니까 ‘이혼식 해줄래?’ 했을 뿐인데 현우가 ‘해줄게’라고 한다. 이혼식을 해줄지 몰랐는데 현우는 하고 싶어하더라”며 “그래서 감독님께 많이 물어봤다. 현실에서 누가 이혼식을 하겠나 했는데 자존심이 센 선영 성격으로 봐서 그럴 수 있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바라는 도전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정현은 “앞으로는 제가 안 했던 캐릭터들 중에 하나 하고 싶다. 액션 많은 작품도 해보고 싶다. 액션을 좀 하긴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간 액션도 하고 싶고, 잔잔한 드라마도 하고 싶다. 로맨스이젠 아줌마라서 잘 모르겠다”고 웃으며 “좋은 독립영화도 하고 싶다. 독립영화 시나리오도 꾸준히 보고 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까”라고 털어놨다.

끝으로 그는 처음 도전해본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에 대해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은 항상 어느 영화를 찍던 현장 가면 너무 즐겁다는 점인 것 같다”며 “어두운 역할 이런 거기에 맞춰서 감정 조절하는 게 힘들었는데 로맨틱 코미디는 계속 행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혔다.

한편 ‘두번할까요’는 오는 17일 개봉한다.

뉴스1

## JTBC ‘괴팍한 5형제’ 정규 편성 확정...엠펙션 이진혁 합류



박준형(왼쪽부터) 김종국 서장훈 이진혁

JTBC 본격 논쟁 토크쇼 괴팍한 5형제의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

10일 JTBC 측은 지난 추석에 공개됐던 파일럿 방송 괴팍한 5형제가 정규 편성을 확정 짓고 오는

31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한다고 밝혔다.

‘괴팍한 5형제’는 평범한 생활 속 주제부터 까다롭고 별난 주제까지 튀든지 줄 세우며 논쟁하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추석 파일럿 방송에서는 ‘사위 시 씻는 순서’ ‘최고의 스포츠 스타’ 등 별난 주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파일럿 방송 당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 서장훈 박준형 김종국은 정규 방송에서도 든든한 맏형 라인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멤버로는 엠펙션의 이진혁이 합류한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형제의 정체도 궁금증을 더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